

# 영광군 의원·공무원 해외연수 논란

### 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 명목

### 19명 5박 6일 일정 일본 견학

### “군민들 어려운데...” 비난 쇄도

영광군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일본 견학을 떠난 것을 두고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사례를 안착시킨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으로 떠났지만, 업무 연관성이 모호한 군의원들이 포함돼 견학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의회 의원 3명과 전문위원 1명, 공무원 15명(실·과 직원 12명, 읍·면사무소 직원 3명) 등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이즈미시노시와 아리타시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이번 견학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

부제’를 앞두고 이와 비슷한 일본의 ‘고향납세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명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 같은 이유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으로 방문단을 보냈지만, 선진지 견학을 할 정도로 수준 높은 행정 역량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견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넘어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 안착과 무관한 군의원들까지 방문단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청 안팎에서도 방문단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영광군 공무원노조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고

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1인당 240만원 들여서 5박 6일 동안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간다는데 관련된 사람만 가면 되지... 너무 과하다”며 일본 방문단을 꼬집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역의 한 주민은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라고 물가, 고금리로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때에 일본을 방문할 게 아니라 들판을 찾아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해진 농업의 활로를 위해 고심했어야 했다”며 “해당 제도 실무자들의 일본 견학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군의회 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을 배워올지 사문대문이다”고 에둘러 비난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방문에 드는 경비는 지방 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충당했으며, 지방 세입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청 안팎에서 일본 견학과 관련된 잡음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초심 잃지 않고 공부하는 의정활동 매진 정책보좌관 전문성 갖춘 책임자 뽑을 것”

### 취임 100일 문자복 목포시의회 의장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돼 100일을 맞은 문자복 의장은 선거 당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하는 의회를 위해 의원 개개인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시정에 시민의 뜻을 답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판과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기금이나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 기금으로 사회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실천에 옮긴다. 목포시의회는 문 의장의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포함해 300여만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에 장애인과 노인



을 위한 사회복지기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회 정책특별보좌관제(비상임 위촉직으로 임기 2년)와 관련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목포시가 시민과 소통 및 정책 제언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해 시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목포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특별단은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로 선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해남군 군곡리 유적, 고대 국제무역항 위상 찾는다

### 해남군-목포대 박물관

### ‘항시와 신미국’ 국제학술대회

고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해남군 군곡리 백포만 일원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해남군은 21일 목포대학교에서 ‘해남군곡리 유적으로 본 고대 항시(港市)와 신미국(新羅國)’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목포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주최하며 한국과 중국, 왜를 잇는 고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해남군곡리 백포만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 현황과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자리다.

1986년 군곡리 패총의 첫 발굴부터 2022년 이루어진 최신 발굴성과를 비롯해 백포만과 김해만, 일본 규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해안과 서일본을 대표하는 항만 세력의 성장·발전과정을 알아보는 뜻깊은 학술대회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와의 접촉을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도 살펴볼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군곡리 패총에서 유적으로’, ‘고대 백포만과 주변 해양 세력’, ‘유적 정비와 활용 방안’ 등 3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1개의 기조강연과 9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해남군 군곡리 유적지내 거석기념물 전경.

〈해남군 제공〉

기조강연은 최성락 목포대 명예교수가 ‘해남군곡리 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를 통해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 현황을 통해 지금까지 유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피고, 앞으로 진행할 과제들에 대해 짚어낸다.

발표 후에는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로 종합토론이 마련돼 유기적인 토론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ZOOM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마한역사박물관TF팀(061-530-5227)으로 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 선정

신안군이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안군은 ‘1004심 구석구석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업 공모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004심 구석구석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요원이 팀을 이뤄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해 1대 1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안군은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인프라

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움직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형태의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시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고,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완도군, 빅 데이터 활용 관광 활성화 도모

### 관광 통계 컨설팅 용역 추진

완도군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완도군은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전망하고 효율적인 관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빅 데이터 기반 관광 통계 컨설팅’ 용역을 10월 중에 착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국내 이동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소셜 미디어 등 4년 간(2019년~2022년)의 자료 분석과 주요 관광지 이용 실태 및 군민 및 관광객 이용 현황 등 관광 환경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완도군을 찾는 관광객, 주요 관광지, 축제 분석, 경제 소비 동향, 소셜 관련 빅 데이터 수집·분석 ▲방문객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빅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제시 ▲빅 데이터 상시 이용권 구매 등이다.

특히 군은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예측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빅 데이터 자료 상시 조회 이용권을 구입하여 정확한 실태 자료를 적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빅 데이터 분석 결과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면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정 전반에 활용 폭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무안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가래떡 나눔 행사

### 어르신 600명에 전달...쌀 소비 촉진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펼쳤다.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7일 현경면 노인의 날 행사에서 무안 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이날 나눔 행사는 하락한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한 무안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은 무안 황도량 쌀로 만든 가래떡을 소포장해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관내 어르신 600명에게 전달했다.

박창심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최근 쌀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과 영농 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모은 기금을 활용한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